

모든 삶 속에서 성직 수행을 강조하는 폴 스티븐스와 그의 책들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2년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IVP)가 번역 출판되면서부터였다. 이후 현재까지 줄잡아 열권이 넘는 책이 출판되었으니, 외국 저자로서는 가히 주목할 만하다. 그가 소위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나 설교자도 아님을 고려한다면 참 이례적인 일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그의 책들이 한국에서 꾸준히 관심을 불러일으킨 몇몇 까닭을 살펴 본 후, 그의 저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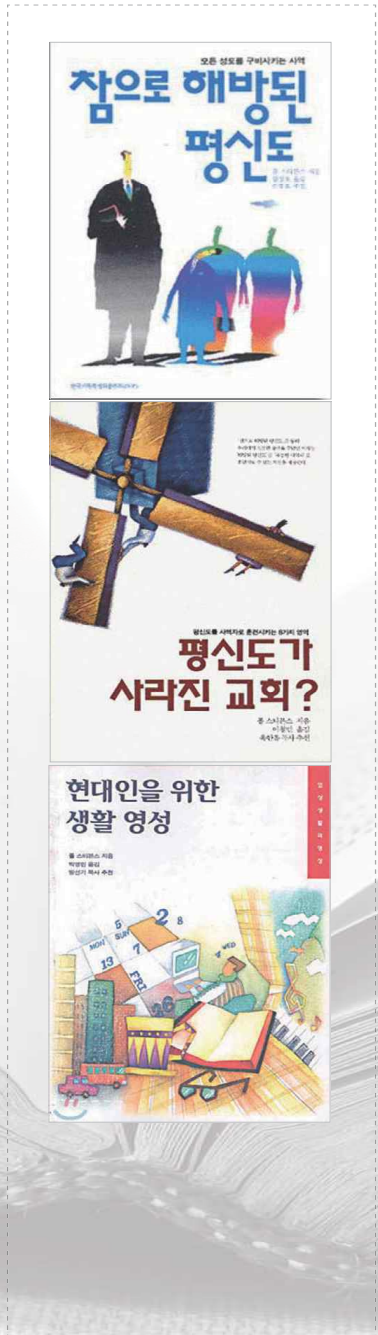
사실 그가 말하는 평신도 신학 문제는 일찍이 소개된 바 있으므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브 콩가르의 Lay People in the Church(1957)와 핸드릭 크래머의 『평신도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58)에서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유산이나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 전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렴풋이 맴돌던 인식이었다. 스티븐스는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말하는 평신도 신학은 단순히 개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진짜 문제를 다룬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 5년 동안 자비량으로 목수 일을 했으며,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삶과 더 현장 속 실제 이슈와 고민들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담아내고 소통하는데 자신의 평생 삶을 바쳤던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스티븐스의 저술에 끌리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기독교 세계관과 총체적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스티븐스의 그것과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교회 울타리에 제한된 기존 목사들의 제한된 경험과 신학으로는 평신도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고민을 담아낼 수도 없었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스는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전임 사역자'임을 외쳤다. 그의 주장에는 날마다 펼쳐지는 평신도 전문인들의 삶을 성직자의 삶으로 인수하는 급진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관심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스티븐스의 책이 소개된 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서는 평신도 신학이나 일의 신학과 같은 주제들이 적잖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의 그 실제 의미는 아주 다른 것 같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온백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먼저 정립한 후 목회 신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목사들만의 신학이 신학의 전

부인 양 가르쳐지는 현실이다. 아직까지 온백성의 신학과 사역을 구비시키는 차원의 신학은 요원한 셈이다. 의식이 깨었다는 평신도들조차 세상 속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고작해야 목사가 하는 일을 일부 빼앗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바빠진 모양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같은 퇴행적 상황에서는 스티븐스의 강조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스티븐스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은퇴한 이후 칠십대 중반인 지금까지 현역 못지않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다. 심장박동 조율기를 달고도 전세계를 누비며 가르침과 저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97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와 인연도 깊은 스티븐스의 책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Liberating the Laity, 한국 IVP, 1992)

평신도 신학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기폭제가 된 책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전임사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골자다. 목회자는 나 홀로 유일한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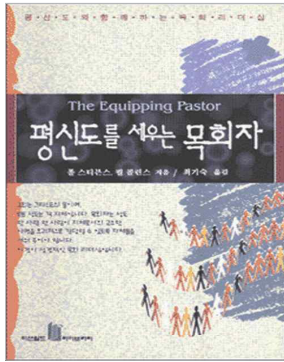
(The Equipper's Guide to Every member Ministry, 한국 IVP, 1995)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가정 아래, 평신도를 여덟 가지 영역에서 구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한국 IVP,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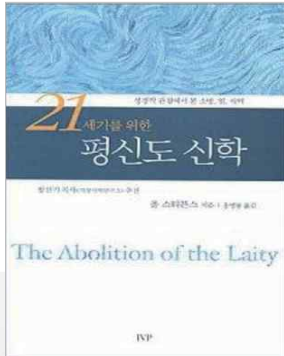
일상생활의 영성을 다룬 책이다. 노동, 가정생활, 이성 관계, 형제 관계, 홀로 있음, 이웃 관계, 안식일 등에 관해 매우 실제적이면서 깊이 있는 통찰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성숙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생활 영성의 진수로, 함께 읽으며 토론하기에도 적합하다.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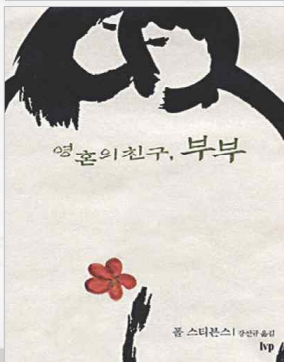
시스템 이론에 입각한 교회 조직 및 리더십을 다룬 책이다. 문화와 과정, 하부 조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교회관을 제시한다. 필 콜린스와 공저.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한국 IVP,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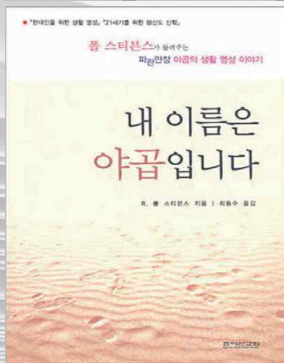
평신도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유를 신학적, 구조적, 문화적으로 분석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는 ‘한백성 신학’을 제시한다. ‘백성의,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신학’을 전개하는 평신도 신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서로, 성경적 소명관을 검토한다.



영혼의 친구, 부부

(Marriage Spirituality, 한국 IVP,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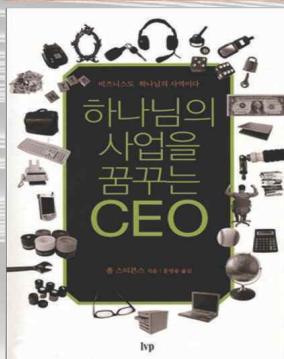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상적인 결혼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임을 주장하는 책이다. 아내와 남편이 영적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일에 대해 모색한다. 기도, 대화, 안식, 공부, 공동 사역, 고백과 용서 등 열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말이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도전 역시 신선하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Down-to-Earth Spirituality, 조이선교회출판부, 2005)

야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전반—출생, 먹기, 가족, 잠, 구애, 결혼, 일, 회심, 섹스, 부르심, 옷, 죽음 등—을 다룬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을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Doing God's Business, 한국 IVP, 2009)

비즈니스 역시 하나님의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윤리적, 도덕적 딜레마를 다룬다.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처세술 류의 책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문화와 정신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새롭게 하는 일터의 신학과 영성을 실제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동시에 성찰하는 지도자상도 제시한다.

폴 스티븐스의 결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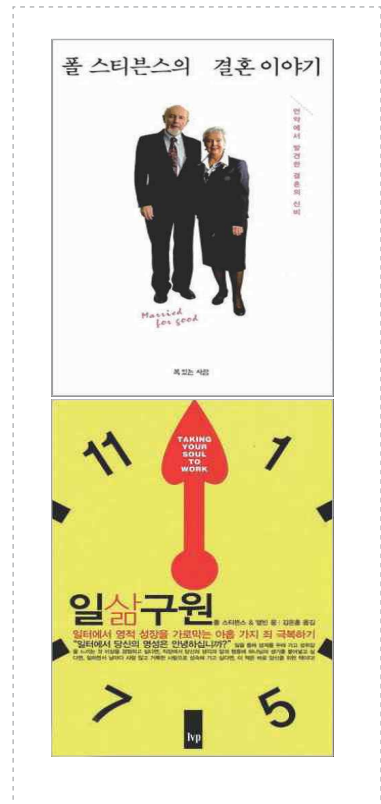
(Married for Good, 복있는사람, 2011)

성경이 말하는 언약 결혼의 개념과 실재를 다루면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섯 가지 사랑과 충성의 형태를 보여 준다. 50년을 함께한 영혼의 동반자 게일과 함께 진행해 온 부부 모임 및 상담이 토대가 되었다. 언약에 입각한 저자의 결혼 관점은 쉽게 깨어지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 삶, 구원

(Taking Your Soul to Work, 한국 IVP, 2011)

일터에서 벌어지는 아홉 가지 죄와 아홉 가지 자원, 일터의 영성 아홉 가지 열매 등 총 27개의 주제를 다룬다. 일터에서 겪는 진짜 갈등과 문제를 콕 찍어내며, 쉬우면서도 깊은 영적 통찰을 보여준다. 하루에 하나씩 읽거나 함께 나누기에 적합하다. 卍



* 사족> 사실 스티븐스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분들은 내가 이 글에서 줄곧 ‘평신도’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실제로 그의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 폐지’(The Abolition of the Laity)이니 말이다.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엉뚱하게 번역되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그의 책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평’으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평’이라는 말이 무슨 ‘귀족’ 혹은 ‘성직’과 구별된 저급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백성 혹은 온 백성 안에는 목사와 목사 아닌 성도가 포함되는데, ‘목사 아닌’이라는 부정적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히려 ‘평신도’라는 용어를 버리는 대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신현기 MP 대표로 일하며, 『기도-하나님과과의 우정』, 『살아 있는 교회』, 『새로운 청년 사역이 온다』,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사회적 하나님』 등의 역서가 있다.